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

李 翰 裕*

目 次

- I. 序 論
- II.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 대한 諸學者의 見解
 - 1. 존 네빌 케인즈(John Neville Keynes)
 - 2.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
 - 3. 모리스 도브(Maurice Dobb)
 - 4. 월트 휘트만 로스토우(Walt Whitman Rostow)
 - 5. 新經濟史學派
- III. 結 論

I. 序 論

經濟史와 經濟理論은 각기 獨自의인 研究對象과 方法을 가진 獨立의 學問領域인가, 아니면 經濟學 내지 經濟史研究에 있어서의 理論과 歷史의 統合은 可能하고 必要한 것인가 하는 問題는 멩거(Carl Menger)와 쉬몰러(Gustav von Schmoller)의 方法論爭(Methodenstreit) 이래 經濟學一般 또는 經濟史學方法論上的 하나의 宿題를 이루어 왔다.

經濟史 研究方法論上 對立되는 立場에 있어서 그 하나는 經濟史研究에 經濟理論과 數量的·統計的 方法을 積極的으로 導入할 것을 主張하는 새로운 立場이고, 다른 하나는 文語的(literary)이며 敘述的(descriptive)이고 制度中心的인 傳統의인 經濟史 研究方法을 固守하는 立場이다.

대체로 一般歷史學 方法論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社會學, 人類學, 法制史, 政治史 등 隣接學問 分野와의 密接한 關聯下에 廣範한 視野를 갖고 綜合的으로 研究할 것을 強調하는 制度中心的인 傳統의인 經濟史 研究方法是 獨逸 歷史學派와 그 影響을 받은 19世紀中葉에서 20世紀 初葉까지의 歐美諸國의 經濟史學者들에 의해 愛護되었었고, ⁽¹⁾ 그 影

* 陸軍士官學校 專任講師

(1) 獨逸 歷史學派의 經濟史研究方法 및 內容은 英國 經濟史家 Cliffe Leslie (1825—92), John K. Ingram (1823—1907), William Cunningham (1849—1919), William J. Ashley (1860—1927) 등과 佛蘭西의 Pierre Émile Levasseur (1828—1911) 및 美國의 制度學派 經濟學者들에게 상당한 影響을 미쳤다.

響은 오늘날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現代 西獨의 經濟史家 프리이드리히 뢰트게(Friedrich Lütge)는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²⁾

「모든 經濟는 分類上 그때 그때의 社會的 生活形態(Lebensform) 속에서 생긴다. 그리고 社會的 生活形態는 持續的인 變化를 겪는다. 經濟的 現象은 人間의 經濟活動이 그 自體의 領域속에서만 理解될 수는 없기 때문에 廣範한 社會的 領域 속에서 究明되어야 한다. 이때 社會的 經濟的 領域은 一面的인 因果關係로 把握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根本的으로 觀念論的 또는 唯物論的 歷史把握方法으로서의 一面的이며 獨斷論的인 公式化에 對立되는 機能的인 相互關聯性의 概念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社會的 現象에 있어서의 어떤 變革은 經濟的 事實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經濟生活이 社會的 狀況으로부터 結果되어 宗教的이고 道德的인 價値로 變形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歷史的 事象의 一面的인 因果關係 解釋은 誤謬인 것이다. 특히 經濟史家は 만약 經濟가 항상 總體的인 人間生活에 奉仕하는 基礎가 되도록 事實을 公正하게 취급하기를 바란다면 人間存在의 이와 같은 多面性을 항상 留意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制度를 그렇게 重視하지 않으면서 過去의 人類社會의 純粹經濟的인 側面에만 專門的인 關心을 쏟아 經濟史的 事實의 一般化的 準據裝置로서 經濟理論을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史料의 操作處理過程에서 數量的·統計的 測定方法을 많이 使用하는 새로운 經濟史研究方法은 第2次世界大戰을 前後해서 擡頭하게 되었다. 즉 第2次世界大戰을 前後해서 經濟의 動態的 變化에 대한 關心이 高調되면서 크게 發展하게 된 景氣變動論, 經濟成長論 및 經濟發展論과 計量經濟學의 成果를 利用한 結果로서, 또한 이러한 經濟學分野의 理論的 模型을 確立·檢證하는 手段으로 利用된 結果로 새로운 經濟史 研究方法이 擡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數量的 方法이나 經濟理論을 經濟史 研究에 利用하는 傾向은 20世紀 中葉 以前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도——특히 物價史, 金融史 등의 分野에 있어서는——實證的·分析的 經濟史家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든 뢰트게와 같은 獨逸經濟史家와는 달리 英·美系統의 實證的·分析的 經濟史家들은 좁은 範圍의 純粹經濟現象의 歷史的 變遷過程에 注意를 集中하는 傾向이 있어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애쉬톤(T.S. Ashton)의 述懷에서 端的으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18世紀에 있어서의 經濟生活의 連續性에 重點을 두었으며 技術變化나 그 時代의 諸政策이나 思想, 특히 資本主義, 重商主義, 帝國主義 등의 語彙가 뜻하는 바와 같은 것들

(2)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Ein Überblick*, 1952, Vorwort에서 引用.

에 대해서는 거의 論及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不正確한 用語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過去에 대한 우리들의 視角을 銳利하게 하기 보다는 무디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몇個月前에 옥스포드大學에서 이 冊에서는 ‘…主義(…ism)’로 끝나는 말은 단 하나도 發見할 수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했었다.’⁽³⁾

그리고 英美에 있어서는 經濟史家가 아닌 一般的인 理論經濟學者로서도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相互補完性を 強調하는 경우가 많았다.

本稿는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 대한 몇몇 學者와 新經濟史學派의 見解를 살펴보고 이 問題를 整理・評價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II.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 대한 諸學者의 見解

1. 존 네빌 케인즈(John Neville Keynes)⁽⁴⁾

존 네빌 케인즈는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 대해 아래와 같이 論議하고 있다.

(1) 理論的 研究에 있어서의 經濟史의 機能

經濟史와 經濟理論의 本質的 差異는 다음과 같다. 즉 經濟史는 過去의 一定한 時期에 存在했던 經濟現象을 敘述하고 이러한 現象의 계속되는 여러 時期에 걸친 實際의인 進行過程을 探究하는 것이나 經濟理論은 經濟現象이 거기에 從屬되는 共存(coexistence)과 連續(sequence)의 均一性(uniformities)을 決定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史의 命題들은 特殊한 具體的 事實들의 敘述이고 經濟理論은 이와 反對로 普遍的 法則의 樹立에 關與한다. 그런데 이 兩者는 모두 서로 다른 쪽을 代身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單純한 歷史的 研究는 그것만으로써는 理論的 問題의 解決에 充分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經濟的 慣習과 諸條件의 實際的 進歩는 先驗的(a priori)으로는 構成할 수 없기 때문이다. 同時에 經濟史와 經濟理論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서로 돕고 制限하며 그 相互關係는 理論이 歷史와 더욱 顯著하게 關聯되는 時期에 接近함에 따라 특히 重要해진다.

이 問題와 관련해서 우선 指摘할 수 있는 것은 理論的 研究의 主題가 되는 經濟現象의 漸進的인 發展에 관한 一般的인 歷史的 研究의 必要性에 관해서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

(3)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1955, Preface에서 引用.

(4) John Neville Keynes, *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1890.

J.N. Keynes는 有名な John Maynard Keynes의 父親으로서 1884년부터 1911년까지 케임브리지大學에서 教授로 在職했었다. 그는 上記 著書 第9章에서 經濟學과 經濟史의 關係에 대해 廣範한 論議를 했다.

약 現存 分配制度가 歷史的으로 거쳐온 發展過程을 追跡할 수 있다면 現在에 있어서 富의 分配를 規定하고 있는 一般的 原理를 더욱 明白히 洞察할 수 있게 될 것이고, 現存 分配制度의 獨特하고 重要的 特徵을 더욱 明白히 認識하고 그 經濟的 結果를 더욱 正確히 探究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勞動組合, 貨幣市場, 金融制度 등의 歷史的 發展經路를 探究함으로써 現在에 있어서 그것들 속에서 作用하고 있는 一般的 原理를 훨씬 더 明白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국 經濟學의 理論的 問題와 關聯된 經濟史의 特殊한 機能은 대략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그 自體가 歷史的 證據를 基礎로 하고있지 않은 理論的 結論을 說明하고 檢討하는 것이고, 둘째는 經濟理論의 實際 適用의 限界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세째는 理論의 性格을 가진 經濟學의 眞理의 直接的 獲得을 위한 基礎를 提供하는 것 등이다.

(2) 歷史에 의해서 說明되는 經濟理論

經濟學자가 採擇하는 一般의 方法이 演繹的 性質을 띠고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歷史的 說明을 發見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써 經濟學徒는 假設과 抽象은 다만 目的에 對한 手段으로 使用했을 뿐이고 經濟學의 窮極目的은 實際 產業界의 現象의 說明과 解釋이라는 것을 想起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歷史上 枝葉의인 問題라도 엄격히 抽象的인 한 가닥의 推理의 眞正한 意義를 把握하는 데 있어서 經濟學徒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流通貨幣數量이 一國의 一般物價水準에 미치는 影響은 헨리 8世와 에드워드 6世 治下의 惡貨鑄造의 盛行이나 튜더王朝時代의 美國內에서의 貴金屬의 大量發見 및 佛蘭西革命 當時의 「아씨냐」(assignats)紙幣發行의 歷史 또는 19世紀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캘리포니아의 金鑛發見등에서 例證할 수 있다.

現在의 經濟理論의 歷史的 說明을 가장 自然스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過去 100餘年間の 經濟에 對해서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經濟史도 어떤 目的에는 利用可能하다. 즉 中世時代의 物價記錄은 經濟理論家에게 一般物價理論을 例證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다. 예를 들면 1315~16年의 食糧供給不足에 의해 惹起된 穀價의 變動은 供給의 變動이 價格에 미치는 影響을 아주 強力하게 例證하고 있다. 當時에 밀의 價格은 平年價格의 3倍 이상으로 騰貴했으며 이 騰貴는 近年(筆者註: J.N. Keynes가 살던 當時)에 經驗한 어느 것 보다는 比例的으로 더 컸다는 事實은 供給의 範圍가 制限되면 될수록 收穫期에 있어서의 供給의 變動이 市場에 미치는 影響은 더욱더 크다는 理論的 結論을 證明하고 있다. 나아가서 中世와 近世의 物價의 比較는 擴大된 市場의 影響과 交通機關의 便宜의 增大가 平年에 있어서 地域的 物價의 差異를 減少시키고 物價를 全國的으로 統一하는 것을 說明해준다.

그런데 中世의 物價變動으로부터 現代經濟理論의 例證을 導出해내는 데 대해서는 慣習의 影響과 法律的 諸制限의 作用이 반드시 需要・供給의 效果를 模糊하게 했거나 消滅시켰을 것이라는 論據에서 아마 反論이 提起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完全競爭을 假定하는 古典學派理論을 그대로 適用하는 데는 조심할 必要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中世 產業界에 있어서도 競爭이 어떤 形態로든 항상 作用하고 있었던 것은 否定할 수 없다. 經濟史는 供給 變化의 作用力이 慣習과 法律制度의 作用力을 능가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賃金에 관해서는 가장 明白한 初期의 歷史的 例證의 하나를 1348年, 1361年과 1369年의 黑死病의 慘禍로 因한 英國勞動史上의 革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世紀初 英國의 人口統計에 관한 意見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거의 半數의 住民이 이 病에 의해 犧牲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一般的으로 意見이 一致되어 왔다. 이리하여 勞動供給의 急激한 減少가 賃金에 미치는 影響과 일단 容認된 賃金의 引上은 永續하기 쉬운 傾向에 대해 研究할 수 있는 機會가 提供되는 것이다. 즉 當時에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產業設備의 運轉이 不可能하게 되었고 賃金은 倍로 뛰거나 3倍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事態가 조금 安定되었을 때도 名目 賃金은 平均 약 50%가 騰貴했던 것이다. 이것은 모두 賃金에 관한 一般理論과 一致한다.

賃金を 옛날 水準으로 復歸시키기 위해 立法家は 끊임없는 努力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目的을 위해 通過된 法令은 어떤 地方에서는 部分的으로 成功的이었으나 대체로 效力이 없었다. 需要・供給의 日常的 作用을 抑制하려는 法律制定의 失敗는 매우 意味깊은 것이다. 즉 그것은 經濟的 條件이 극히 完만하게 變化하는 데서는 賃金과 物價는 競爭과는 全然 相關없이 法律 또는 慣習에 대해 規制되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나 事實은 法律 또는 慣習 自體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修正되고 있어서 어떤 時期에 와서는 法律 또는 慣習이 容認하는 賃金率이 自由로운 需要・供給法則의 作用이 招來했으리라고 생각되는 正常的인 賃金率과 커다란 差異가 없다는 점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은 歷史的 例證의 價値에 대해서 注意를 기울이는 同時에 現代의 觀察과 比較해본 歷史的 記錄의 弱點에 대해서도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利用可能한 素材의 正確성과 適切性を 똑같이 確信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며, 記錄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多數의 影響力이 作用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記錄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過大한 評價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3) 歷史에 의해서 批判되는 經濟理論

理論의 研究와 關聯된 經濟史의 眞正한 機能은 批判이라고 일컬어져왔다. 이것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機能中의 하나다. 왜냐하면 歷史는 단순히 說明하고 確認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理論의 誤謬를 明白히 하고 理論의 時代的, 地域的 制約性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특히 經濟史는 經濟理論의 實際適用의 限界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經濟的 諸條件의 變動性에 대해서 注意를喚起시키고 이 條件들이 變化함에 따라 經濟現象을 規定하는 原理가 적어도 약간은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指摘해준다. 獨逸 歷史學派經濟學者들이 具體的 經濟理論에 관한 限 經濟理論의 相對性을 거의 一般的으로 認定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顯著하고 合理的인 勝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歷史에 의해서 樹立된 經濟理論

다음으로 提起되는 문제는 歷史的 資料는 經濟的인 一般的 原則 즉 經濟理論의 發見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有用한가 하는 것이다. 確實히 그 문제의 解決에 演繹的 推理와 歷史的 研究의 同等한 結合이 必要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주로 歷史的 一般化 또는 概括에 依存해야 하는 다른 경우도 있다.

前者의 경우로는 機械가 賃金에 미치는 영향, 與信의 週期的 變動, 未熟한 通貨政策에 基因하는 弊害의 程度, 商工業에 미치는 金鑛發見과 金不足의 影響, 累進稅制의 作用, 各種 救貧制度和 國家干涉의 經濟的 結果 등의 問題가 있다.

그리고 後者の 경우로는 經濟成長과 發展에 관한 問題가 있는데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抽象的 推理는 最小로 減縮되고 歷史的 一般化에 대한 經濟學者의 依存은 最大로 된다. 실로 經濟成長 및 發展에 관한 理論은 經濟史의 哲學을 構成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連續的 社會段階의 直接的 比較에 의해서만 우리는 經濟狀態가 서로 繼起하거나 性格이 變化할 때에 貫徹되는 어떤 法則의 發見을 合理的으로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전국 經濟發展의 研究에서 처럼 先驗的 方法이 所用없는 社會科學의 分野는 거의 없다. 그리고 經濟狀態의 發展樣式을 研究하는 데 있어서는 經濟學者는 一般社會學的 知識과 歷史的 研究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

(5) 經濟史 研究에 있어서의 經濟理論의 機能

이제 經濟理論의 知識이 經濟史研究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有用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指摘할 점은 理論的 知識 즉 經濟現象과 관련된 一般的 命題의 지식은 經濟史家에게 어떤 種類的 事實들이 重要的 經濟的 意味를 가지기 쉬운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5) Keynes, *op. cit.*, pp.283—4. 이러한 歷史的 比較의 예로서 그는 Henry Maine의 研究業績을 들고 있다. 즉 Maine은 古代社會의 要素를 아직도 갖고 있는 東洋의 어떤 地域의 村落生活樣式을 研究함으로써 유럽의 初期時代의 農業共同體의 性格과 發展過程에 대한 어떤 洞察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事件의 單純한 蒐集이나 記錄에 從事할 때에도 제본스가 自然觀察者의 경우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가 理論的 判斷의 引導를 받아 일을 處理하는 것이 有利할 때가 있다. 産業現象이란 대단히 複雜해서 어떠한 特殊事實을 研究할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事實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注意를 끌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된다. 따라서 經濟的 世界의 因果關係에 관한 知識은 우리가 특히 注意를 기울여야 할 事實과 無視해도 좋을 事實을 識別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理論的 判斷은 때로는 重大한 危險의 源泉이 될 수도 있다. 事件의 單純한 敘述이라는 것도 敘述者의 理論的 見解에 의해서 어떠한 影響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敘述者는 事實들 중에서 어떤 것은 強調하고 어떤 것은 無視하여 그것들을 配列하고 整理하기 때문에 그 事實들은 거기서 그 自身이 끌어내려고 하는 結論을 暗示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만약 敘述者의 理論的 見解가 그의 事實敘述에 影響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면 理論에 대한 그의 豫備的 研究가 慎重하고 正確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歷史家는 그가 採擇하고 있는 理論的 見地를 明白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歷史家가 適切하게 自己의 職分을 完遂하려면 그는 諸現象間의 關係를 確立하고 그 사이의 因果關係를 探究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理論的인 一般的 命題의 適用이 必要한 것이다. 一般的으로 直接的 證據가 提供해주는 것은 諸事件의 複雑한 連續이고 그 속에는 因果關係의 結合이 가지 各색의 樣式으로 숨겨져 있으므로 그것은 科學的 知識을 철저히 가진 訓練된 學徒에 의해서만 看破될 수 있다. 그리고 經濟史學者는 特殊한 經濟理論을 適用할餘地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經濟理論의 推理의 科學的 訓練을 받았다는 것은 有利하다.

또한 理論을 批判하는 것이 歷史의 職能인 것과 같이 歷史를 批判하는 것은 理論의 職能이라고 할 수 있다. 理論은 어떤 特定한 變化로부터 어떠한 實際的 結果가 뒤따라 생길 것인가를 明確하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蓋然的으로 可能的 結果를 豫測할 수 있고 또 各結果가 發生하게 되는 諸條件을 特殊化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理論은 實際로 發生한 것에 대한 주어진 說明을 有用하게 批判 檢討할 수 있다.

끝으로 經濟史 研究를 經濟理論 研究보다 先行시켜야 할 것인가 또는 그 反對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論爭이 있어 왔으나 折衷的 見地에서 말한다면 兩者는 相互依存의이기 때문에 다소 並行해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

로빈스에 의하면 經濟學은 重要도가 다른 多數의 諸目的과 選擇의 用途를 갖는 稀少한

諸手段간의 關係로서의 人間行爲를 研究하는 學問이다.⁽⁶⁾

그리고 그는 經濟理論이 諸目的과 手段사이의 關係의 形式的 意味를 여러가지 假定下에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經濟史는 諸目的과 手段사이의 關係가 時間的 過程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具體的 경우에 대한 研究라고 보았다. 즉 經濟史는 稀少性的 歷史的 發現에 대해 說明하는 것이며 經濟理論이 形式(form)을 記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經濟史는 具體的 實體(substance)를 記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빈스는 經濟學의 主要 研究課題는 行爲의 可能的 目標로서의 諸目的과 技術的・社會的環境과의 關係라고 보았다. 나아가서 그는 經濟史는 事件의 連鎖를 包括的으로 記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特定한 側面 즉 經濟的 關係의 變化하는 樣相, 敷衍하면 諸目的의 變化的 經濟的 意味와 그 目的 實現을 위한 技術的・社會的 機會의 變化的 樣相을 記述하는 것이라고 規定했다.⁽⁷⁾

그리고 그는 經濟理論家가 必然的인 經濟的 關係를 다루어 모든 것을 諸範疇(categories) 속에 包含시키려고 한다면 經濟史家는 複合的인 事件의 連鎖를 他領域의 歷史에 從屬시키지 않고 모두 經濟史의 觀點에 關聯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서 그는 宗教改革에 대한 解釋이 여러가지 觀點에서 各其 獨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즉 宗教改革은 宗教史家의 觀點에서는 그것이 敎義와 敎會組織에 미친 影響이 意味가 있고, 政治史家의 觀點에서는 그것이 政治組織의 變化和 支配者와 被支配者 사이의 새로운 關係 및 國民國家의 發興 등에 미친 影響에 焦點을 맞출 수 있고, 文化史家의 觀點에서는 藝術의 形式과 主要內容의 變化和 近代 科學의 探究精神의 解放 등에 그것이 미친 影響에 焦點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史家의 觀點에서는 宗教改革이 財産分配의 變化, 交易通路의 變遷, 漁物需要의 增大, 租稅賦課의 變化 등에 미친 影響에 焦點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見解로는 經濟史家는 目的이나 手段 自體의 變化보다도 兩者 사이의 關係의 變化에 重點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生産의 技術的 過程의 變化를 考察하는 데 있어서 蒸氣機關의 發明 및 철도교통수단의 발명의 경우 經濟史家는 그 技術自體의 變化보다도 그것이 特定生産物이나 生産要素의 需要와 供給에 影響을 미치고 物價와 社會의 所得構造에 影響

(6) 이것은 稀少性概念으로 본 經濟學定義(the 'scarcity' definition of economics)로서 로빈스는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1952라는 著書에서 이 점에 대해 상세히 說明했다.

(7) Robbins, *ibid.*, p. 39. 이 점에 대해서는 Cunningham도 經濟史는 特定한 類의 事件들에 대한 研究라기 보다는 特定한 觀點에서 행하는 모든 事件들에 관한 研究라고 規定하고 있다. Cunningham, *Growth of English Industry and Commerce*, Vol. I. p. 8.

을 미친 點에 대해 關心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빈스는 過去의 傳統的 經濟史가 獨逸 歷史學派의 影響을 받아 그 범위를 크게 擴大시켜서 經濟史속에 包含시킬 수 없는 社會學的이고 倫理的인 要素를 그 속에 混入시켜 왔다고 批判했다. 그리하여 그는 現代의 經濟史의 主要目標은 特殊한 「稀少性 關係」를 解明하는 데 있다고 主張했다.

3. 모리스 돕 (Maurice Dobb)

모리스 돕은 經濟理論과 經濟史의 領域을 區分하여 모든 經濟社會의 研究는 體制의 어떤 變化에 대해서도 獨立的인 自動的인 交換關係의 局面 즉 經濟理論家의 領域으로 되는 局面과 財產制度和 階級關係의 局面 즉 諸體制에 대한 比較研究가 中心이 되는 社會學者와 制度史家의 領域으로 되는 局面으로 區別할 수가 있다고 했다.⁽⁸⁾

그런데 돕은 經濟史에 비추어보지 않은 經濟理論의 盲點을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즉 첫째로 어떠한 經濟理論의 豫測도 變化하기 쉬운 傾向에 대한 어떤 假定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그 傾向의 變化의 蓋然性은 過去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評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特定한 理論이 解答을 주려고 하는 諸問題의 關聯은——諸假定과 諸定義의 주어진 構造가 現實性을 充分히 表象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抽象的 模型을 許與하든지 안하든지간에——過去에 있어서의 發展의 形態와 諸事件의 繼起에 관한 知識에 비추어 보아야만 判斷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近代經濟理論은 經濟社會의 分析을 거의 市場의 規準으로 局限하여 資本主義社會의 本質的 特性을 神祕化해서 經濟性에 따른 節約의 理論이나 生産性이란 用語로 너무 單純化시켰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市場의 規準에서는 交換possible한 모든 것은 그것이 人間의 勞動力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實體로 取扱되고 모든 것이 抽象化되어 等價價物의 交換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經濟的 勢力과 特權을 所有하는 한 階級에 의한 剩餘價値의 專有라는 特殊한 형태의 資本主義의 本質은 魔術에 의해 숨겨지게 된다고 그는 主張했다. 그러므로 그는 資本主義經濟分析의 焦點이 一般的 交換社會의 研究에서부터 資本主義 經濟의 生理學과 成長에 관한 研究로 移行하는 것과 그것을 相異한 諸經濟形態의 比較研究와 關聯짓는 것이 必要한 課題라고 보았다.

그는 歷史는 단순히 特定한 假定을 實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假定의 複合的 體系內에서의 關係 및 이러한 複合的 假定體系 全體와 變化하는 現實 사이의 關係를 考察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相異한 諸經濟社會의 型에 共通된 特徵이 있고 그것들이 理論의 分析의

(8)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rev. ed., 1963, p. 28.

對象이 되는 것은 否定할 수 없지만 經濟發展에 관한 問題는 첫째 現實性이 普遍性에 의해 冷酷하게 희생당한 制限된 傳統的 經濟分析의 領域을 넘어서고, 둘째 經濟的 要因과 社會的 要因이라고 區別하여 이름짓는 既存의 方法이 撤廢되지 않는 한 滿足할만한 解答을 얻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⁹⁾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近代 經濟學 理論의 弱點을 指摘하면서 單純한 交換社會의 研究에 不過하다고 본 그것을 넘어서서 마르크스 經濟理論의 視角을 中心으로 하면서 廣範한 視角에서 經濟史 研究를 할 必要가 있음을 主張했다.

그런데 돕은 類別(classification)의 原則이란 것을 갖고 經濟史研究와 理論과의 關聯性을 強調했다. 즉 그에 의하면 우리가 封建制度, 資本主義라는 用語에 一定한 意味를 부여할 때 우리는 이미 歷史的 事件을 採擇하고 蒐集하기 위한 하나의 類別의 原則을 事實上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歷史研究를 할 때는 歷史가 歷史學에 부여하는 바 素材로서의 歷史的 過程의 連續을 어떻게 切斷하는가, 換言하면 어떤 事件 또는 어떤 因果關係를 확실하게 明示하는가를 決定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必然的으로 類別이란 것이 分析의 前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敘述(description)에서 分析(analysis)으로 進出할 경우 거기서 채택되는 定義 또는 理論이 그 結果에 대하여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主張했다.

4. 월트 휘트만 로스토우(Walt Whitman Rostow)

로스토우는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經濟史家가 近代經濟學에서 發展된 理論的 裝置를 어떻게 利用하고 그것을 그의 歷史家의 洞察力과 어떻게 結付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또한 그는 人間의 認識은 恣意的인 抽象的 概念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人間이 事實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實體와의 乖離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歷史的 解釋物도 그것이 暗默的이고 恣意的인 理論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明確한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問題라고 보았다.⁽¹⁰⁾

로스토우는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를 密接하게 해주는 것은 經濟史에 대한 問題意識의 接近方法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經濟史에 대한 問題意識의 接近方法은 두 가지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즉 첫째로 歷史는 公共政策의 그 時代 時代의 爭點에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歷史는 同時代人들의 關心거리가 되어 있는 未解決의 知的 問題에 비추어 再檢討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意味는 一般的으로 關聯

(9) Dobb, *op. cit.*, pp. 31—32.

(10)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 333.

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왜냐하면 社會科學上 大部分의 知的 問題는 그것이 아무리 科學的 形態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公共政策에 관한 討論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經濟史와 有關한 問題意識의 接近의 題材의 例를 들면 自由貿易과 保護貿易에 관한 論爭, 經濟運營에의 政府干涉의 合理性與否, 社會福祉立法의 合理性與否, 勞動組合의 合理性與否 등에 관한 論議가 19世紀에 있었으며, 1920年代에는 通貨・貿易政策에 관한 論議가, 그리고 1930年代에는 景氣變動의 原因과 그 對應策에 관한 論議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指摘하고 있다. 또한 第1次世界大戰과 第2次世界大戰 사이의 不安한 時代에는 歷史的進化와 資本主義의 生存能力에 대한 長期的 考察이 觸發되어 슈페더에게 企業家精神研究의 길을 열었으며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低開發地域에서의 經濟成長의 加速化問題가 主要題材로 登場하게 되었던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든 여러 가지 題材들은 經濟理論上의 主要爭點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當代의 經濟史 研究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로스토우는 1950年代 以後의 美國의 經濟學科 大學院은 問題志向性 思考를 弱화시키고 思考를 斷片的으로 組織된 原理에 길들이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로스토우는 問題意識의 接近에 充實하다는 것은 經濟史와 理論과의 關係를 強化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理由로는 첫째 問題意識은 經濟史家로 하여금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理論的 假定의 盲目的 追從者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 問題意識은 經濟史家로 하여금 그의 資料와는 無關한 出發點을 提供해줌으로써 그의 資料 속에 構築되어 있는 範疇나 分析의 概念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주며, 셋째로 問題意識은 歷史家와 理論家 사이에 共通의 專門의 討論을 가질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게 되어 歷史家는 理論家가 어떻게 問題를 提起하는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理論家에게 事實이 實際로 어떻게 展開되고 있었던가를 가르쳐줄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說明했다.

그런데 로스토우는 經濟史家와 經濟理論家의 共同作業이 어떤 結實을 맺는 過程에서는 難點에 逢着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經濟理論家는 마아샬의인 短期假定(short-period assumptions)을 떠나서 問題를 다룰 때는 不安해 하고 經濟史家는 人間의 嗜好와 制度, 人口, 技術 및 產出能力이 變化하고 있는 世界를 對象으로 하여 研究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立場의 差異는 兩側의 共同作業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經濟理論의 바로 주된 強點에서부터 弱點을 導出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즉 그에 의하면 近代經濟理論은 뉴우튼體系의인 性格의 人間行爲에 관한 思想이며 그것은 極少數의 基本假定下에서 靜態的 均衡狀態를 設定

하려는 論理的 努力에 不過한 것이다. 예를 들어 價値理論과 分配理論을 볼 것 같으면 그것들은 人間과 그의 環境에 대한 하나의 命題로부터 發展시켜 導出한 限界效用遞減의 法則과 限界生産物遞減의 法則으로부터 靜態적으로 演繹된 것이며 이러한 命題는 近代 所得分析에도 그대로 殘存하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그러면서 로스토우는 케인즈의 有名한 警句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는 것에 대해서 歷史家は “Nonsense! the long run is with us, a powerful active force everyday of our lives.”라는 말로 應酬할 수 있다고 말하여 長期的 變動에 대한 經濟史的 研究의 必要性을 強調했다.

그리고 로스토우는 現代에 있어서 經濟史와 理論의 가장 自然스러운 接合點은 相異한 諸社會에 있어서의 經濟成長問題에 焦點을 맞춘 動態的인 變化의 比較樣態를 研究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結局 로스토우는 經濟史 研究에 있어서의 經濟理論의 役割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經濟理論은 經濟現象의 問題를 定義하는데 必要하다고 그는 보고 있다. 즉 經濟理論은 經濟體制內에서 作用하고 있는 諸要素를 모두 觀察하고 定義하는 整然한 方法을 提供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長期變化의 性質이 長期 經濟理論의 發展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長期變化에 관한 重要한 理論的 命題의 簇出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經濟理論의 分析道具는 不完全하게나마 長期動態的인 經濟史的 研究에 援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經濟理論은 交叉比較와 一般化를 可能하게 하는 分析的 範疇의 用語로 된 過去에 대한 知識의 體系의 構成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토우는 經濟史家가 經濟理論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것은 排擊하고 있다. 즉 그는 歷史家가 抽象的 概念에 의해 引導된다고 하더라도 資料를 蒐集・批判・整理하는 歷史家 固有의 일을 疎忽히 해서는 안되고 우선 어떤 事象이 過去에 있어서 眞實로 어땠었던가를 아는 데서부터 單純한 滿足感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歷史家가 아무리 一般화된 普遍的 知識의 획득에 充實하다고 하더라도 廣範한 歷史法則에 대한 例外事項을 發見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5. 新經濟史學派

新經濟史學派는 포겔(Robert W. Fogel), 메이어(John R. Meyer), 콘라드(Alfred H. Conrad), 노오드(Douglass C. North), 휴즈(Jonathan R.T. Hughes), 데이비스(Lance E. Davis) 등 美國의 少壯 經濟史學者들을 指稱하는데 이들은 經濟史 研究에 計量的 方法과 經濟理論을 本格的으로 適用하는 새로운 經濟史 研究方法을 提示하여 특히 1960年代 이

후 美國을 비롯한 世界 經濟史學界에서 상당한 注意를 끌게 된 學派이다.

이러한 新經濟史學(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論的인 特徵은 다음의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資料의 精密한 計量的, 統計的 分析・處理를 強調하는 점을 들 수 있다. 傳統的 經濟史學에 있어서는 原初的 統計資料를 그냥 있는 그대로 提示하는 데 그쳤으나 新經濟史學에서는 엄격하게 定義된 經濟理論의 諸概念을 밝힐 수 있도록 原初的 資料를 變形하기까지 하는 것이다.⁽¹¹⁾

또한 傳統的 經濟史學에서는 數量的 資料는 단지 說明을 補充하는 데 使用하고 質的인 說明에 重點을 두었으나 新經濟史學에서는 質的인 歷史的 假說까지도 數量的 證據로 檢證하려고 한다. 따라서 新經濟史學에서는 數學과 統計學이 主要 分析手段이 되고 특히 回歸分析 같은 것을 많이 利用한다.

둘째로 新經濟史學派는 測定值(measurements)의 再構成과 間接的 測定(indirect measuring)의 方法을 使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新經濟史學派는 과거 歷史上 어느 때에 存在했었을지도 모르지만 現在에는 이미 存在하지 않는 測定值를 現在에 남아있는 統計資料를 가지고 推定해서 再構成하기도 하고 直接的 測定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間接的 測定方法을 使用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新經濟史學派가 經濟史를 計量的으로 研究하는 過程에서는 經濟理論이 擔當하는 役割이 아주 크며 그들은 諸假說(hypotheses)과 虛構(figments)를 設定해서 때로는 反事實的(counterfactual)이기도 한 歷史的 模型(historical model)을 만든다는 점이 特徵이다.

新經濟史學派는 傳統的 經濟史學者들과는 달리 制度를 그렇게 重視하지 않고 巨視經濟的 過程을 直接的으로 다루려고 한다. 따라서 經濟史 研究에 經濟理論을 導入・適用하는 것이 아주 必要해진다. 그리고 理論은 測定の 必要가 있는 對象自體의 決定過程에 介入하는데 必要하고 또한 直接的으로 測定할 수 없는 對象을 間接적으로 測定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必要해진다.

그런데 新經濟史學派는 統計資料가 貧弱하면 할수록 統計的 測定方法을 더욱 더 要緊하게 使用한다. 왜냐하면 新經濟史學派 學者들은 歷史上 실제로 存在했던 事象 뿐만 아니라 실제로 存在했으나 어떤 事故로 觀察・記錄되지 않은 채 看過되어 버린 事象과 過去에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觀察・記錄이 될 수 없었던 事象까지도 測定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

(11) Robert W. Fogel, "The New Economic History: Its Findings and Methods," *The Economic History Review*, Dec. 1966, p. 651.

기 때문이다. 그리고 歷史上의 事象은 實際로 存在했던 것과 어떤 特定한 條件이 없었더라면 어떤 狀態로 存在했을 것인가를 比較해 볼 必要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新經濟史學派는 反事實의 條件(counterfactual condition)을 設定하게 되며 假說과 虛構를 만들어서 歷史的 模型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假說과 虛構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假說은 現實의으로 存在하는 實體를 反映하는 假定(assumption)에 根據를 두고 있으나 虛構는 現實의으로 存在하는 對應 實體를 갖지 못한 架空의 假定에 根據를 두고 있으니 그만큼 非現實의인 것이다.

또한 假說은 檢證(verification) 또는 論破(虛僞의 立證: falsification)될 수 있는 것이나 虛構는 單純히 觀念의인 構成體로 檢證 또는 論破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假說에 의해서는 知識自體를 獲得할 수 있으나 虛構에 의해서는 知識을 획득하기 위한 道具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虛構는 反事實의이고 假想的(subjunctive)인 條件法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虛構에 基礎를 둔 研究로부터 新經濟史學者는 準歷史(quasi history) 또는 歷史的 模型을 構成하게 된다.

그런데 新經濟史學派는 다시 몇개의 流派로 細分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로 데이비스와 휴즈는 傳統의인 數量的 經濟史에 비교적 가까우면서 精緻한 數學的 道具를 많이 사용한다. 둘째로 노오드는 計量化方法과 檢證될 수 있는 明白히 定義된 假說을 同時に 利用한다. 셋째로 포겔, 콘라트, 메이어 등은 虛構에 根據를 두고 計量的 方法을 많이 使用하여 準歷史 또는 歷史的 模型을 構成하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經濟史 接近方法을 提示하는 新經濟史學派가 登場하게 된 것은 第2次世界大戰 이후 動態經濟學 특히 經濟發展理論의 研究가 활발해진 것과 關聯이 있다. 그런데 新經濟史學 方法論이 擡頭하게 된 背景을 좀더 包括의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傳統의 經濟史 研究方法和 新經濟史 研究方法사이의 相異點은 첫째 傳統의 經濟史家와 新經濟史 研究者사이의 歷史的 世代(historical generation)의 相異와 結付지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歷史的 世代라는 것은 特定한 歷史的 狀況下에서 같이 자라난 世代를 뜻한다. (12)

兩者間의 相異點은 둘째로 世界觀(Weltanschauung)의 相異와 關聯지어 생각할 수 있다.

(12) Fritz Redlich,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Economic History and Their Interdepend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V, 1965.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編,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1)에 轉載 p.57.

즉 19世紀末이나 20世紀 初葉까지만 해도 세 가지 形態의 世界觀이 存在했으나 그것은 實證主義(positivism)와 自由의 世界觀(‘Weltanschauung’ of freedom)과 調和의 世界觀(‘Weltanschauung’ of harmony)이었다. 그런데 兩次世界大戰 이후에 自由의 世界觀과 調和의 世界觀은 消滅하고 現在에는 實證主義와 反實證主義(antipositivism)로 兩分할 수 있을 뿐 이라고 提議하는 說明한다. 이와같은 兩者의 區分은 存在論的 認識論的 權威要素의 結合 樣式에 따라 할 수 있다. 新經濟史學派의 接近方法은 모든 事象은 計測・評價되는 것이 아니면 無意味하다고 보는 立場에서는 實證主義에 根據를 두고 있으면서 經濟理論에 크게 依存하기 때문에 反經驗主義的(antiempiricistic)이라고 볼 수 있다.

III. 結 論

이상에서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係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보았는데 兩者는 서로 補完되어야 하는 關係를 갖고 있음을 一般적으로 認定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든 學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經濟史 研究에 經濟理論을 適用하는 경우 經濟理論의 性格과 內容에 따라 經濟史의 性格과 內容이 決定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經濟史 研究에 經濟理論이 適用되는 程度나 範圍는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며 그 經濟理論이 歷史的인 事實을 分析하는 데 充分한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稀少性 概念에 根據를 둔 로빈스의 經濟理論이나 唯物史觀에 立脚한 마르크스經濟學의 觀點에 치우친 둘의 經濟理論이나 新經濟史學派에 의해서 주로 利用되고 있는 新古典學派 經濟理論이 經濟史의 研究對象이 되는 歷史的인 經濟現象의 推移를 充分히 包括적으로, 또 妥當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經濟學 理論은 그 理論이 形成된 時代의 여러가지 思想的 背景과 現實的인 政治的・社會 經濟的 諸條件 및 理論樹立家의 個人的 特性까지 考慮하지 않고서는 充分하게 解釋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經濟學 理論의 形成에 영향을 미친 以上の 諸條件이 變化하면 經濟學理論도 그 內容과 說明方式 自體가 달라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意味에서는 오늘날의 實證經濟學이란 것도 미록 그것이 價值判斷을 排除한다고 主張되고 있지만 실은 어떤 價值體系 위에 서 있는 社會體制 內에서 限界지워진 체로 活動하고 있는 人間의 經濟行爲 樣式과 現實에 나타나고 있는 經濟現象을 있는 그대로 說明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어떤 經濟學理論이 直接的으로는 價值에 關聯된 概念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理論의 全體的 體系의 基底에는 어떤 價值觀點을 基本

的 前提로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現實的인 社會經濟體制 自體가 어떤 價值觀點 위에 立脚해 있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면 그 社會經濟體制下에서 일어나는 經濟現象의 法則을 說明하는 經濟理論은 人間의 經濟活動이 그 社會經濟體制的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價值觀點 위에서 形成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결국 모든 時代 모든 地域에서 妥當視될 수 있는 經濟理論이 과연 存在하는지는 疑問이다. 經濟理論의 時代와 地域에 따른 相異性を 認定한다면 經濟理論을 經濟史 研究에 適用하는 데는 상당한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마샬은 理論家가 어떤 理論을 主張하는 데 있어서 注意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모든 理論家중에서 가장 前後事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信賴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事實과 數字自體로 하여금 說明하게 한다고 公言하고서는 이 事實과 數字의 選擇 내지 分類에 있어서,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즉 그 結果>라는 論議의 暗示에 있어서 無意識의으로 意識的으로 自己가 한 役割을 背後에 감추는 사람이다」⁽¹³⁾

經濟理論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限界性を 지니고 있다면 그러한 經濟理論을 適用해서 構成한 經濟史가 마찬가지로 限界性を 지니게 될 것임은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關聯性を 強調하는 學者들이 특히 新經濟史學派 學者들의 경우에 現代經濟理論의 一部門을 分析道具로 使用하는 데 있어서 社會經濟的 條件이 다른 過去의 어느 時期에 無制限하게 修正없이 適用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過去에 存在하지도 않았던 經濟現象에 대한 歷史的 模型을 形成하는 것이 妥當한 것인가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포스탄은 計量的이고 現代經濟理論과 관련된 단순한 模型이 中世經濟에 適用될 때의 誤謬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무수한 小生産者의 活動으로부터 結果되는 經濟成長과 收縮을 現代經濟理論의 模型으로 說明하는 것은 그 小生産者들의 主要한 生産決定이 樂觀的 또는 悲觀的이기도 한 未來의 景氣展望에 對應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忘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¹⁴⁾

레들리히에 의하면 歷史的 問題는 調査된 問題가 단순히 過去의 것이었다고 해서 事實上(*ipso facto*)의 歷史的인 問題로 되지는 않는다. 經濟問題는 거기에 特殊하게 歷史的인 要素가 添加되었을 때만 經濟史의 問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歷史란 根本的으로 時間이 흐름에 따라 變化하므로 經濟問題도 經濟史家가 다루는 主題가 되는데 있어서는 變化하는

(13) Alfred Marshall,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16.

(14) Barry E. Supple,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 No. 4, Dec. 1960, p. 552.

것으로 把握되지 않으면 안 된다.⁽¹⁵⁾

결국 우리는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主對象으로 한 近代經濟學理論이나 역시 一定한 時代의 社會經濟의 條件下에서 나온 唯物史觀에 基礎를 둔 마르크스經濟學理論만을 適用해서 모든 時代 모든 地域의 經濟史를 解釋한다는 것은 一面的인 歷史解釋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新經濟史學派를 비롯해서 經濟理論을 經濟史研究에 積極的으로 導入하려는 學者들 가운데는 經濟理論 중에서 成長이나 發展에 관한 理論에 지나치게 置重하고 分配面에 관한 理論은 너무 等閑視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經濟發展이나 效率性이 經濟史家가 關心을 기울여야 하는 유일한 主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經濟史가 다루는 問題로는 以外에도 分配나 公平에 관한 問題가 있으며 經濟的 技術의 變化와 社會構造나 政治的 制度와의 關係에 까지 걸칠 수가 있다. 즉 經濟現象의 歷史에서 人間이 意義를 두고 考慮해 보고자 하는 問題로는 成長이나 發展 및 效率性에 관한 問題 뿐만이 아니고 價値와 關聯해서 본 經濟的 變化의 效果나 個人이나 階層間의 所得分配狀態, 雇傭의 安定狀態, 勞働者生活의 質이나 產業組織內에서의 人間關係 등 아주 多樣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¹⁶⁾

그리고 經濟史家は 經濟發展의 榮光만 다룰 것이 아니라 產業化 過程에서 치르게 된 社會의 費用에 대한 評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經濟史가 經濟發展 問題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生産이나 所得에 대한 數量的 資料는 實際 歷史의 一部面 밖에 보여주지 못하며 그것은 經濟의 歷史的인 實際的 運行過程 自體와 同一하지는 않다. 따라서 數量的 資料는 實際的인 經濟運行過程의 結果를 나타내는 數量的 象徵物에 不過하다. 그러한 數量的 象徵物을 時系列形態로 配列함으로써 計量經濟史家들은 그것들이 實際的인 經濟의 運行過程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나 사실은 그것들은 經濟의 實際的 過程을 測定하는 判斷・比較의 尺度로서의 役割밖에 遂行하지 못한다.

經濟發展 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經濟理論을 適用해서 行하는 國民所得推計나 投入-產出分析같은 것도 經濟運行過程의 實際的 指標를 마련해주는 것으로서 중요하지만 質的 側面으로 들어가서 보면 루이스가 말하는 바와 같은 經濟化하려는 意志(the will to economize)는 어떤 要因에 의해 創出될 수 있고 技術變化와 새로운 經濟組織 및 制度를 受容하는 態度를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誇示效果的 消費(conspicuous consumption)를 頗多하게 하거나 그것을 抑制하고 貯蓄을 增大시키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創意的인 企

(15) Redlich, *ibid.*,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1), p. 67.

(16) Carter Goodrich, "Economic History: One Field or Two?"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 No. 4 Dec. 1960, pp. 536-7.

業家精神의 源泉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經濟社會學의 問題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諸條件을 充分하게 理解하려고 한다면 純粹經濟理論의이고 計量的인 方法만으로서는 不充分하고 人類學, 社會學, 政治學 등 廣範한 隣接學問分野까지 援用해서 研究하는 傳統的 經濟史學의 方法과 거기에서 나오는 洞察力에 크게 依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傳統的 經濟史學 研究方法에도 問題가 있다. 經濟史 研究가 계속 經濟史家의 主觀的인 觀點에 의해 敘述의이고 文語의이고 解釋法(hermeneutic method)의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미 存在하고 있던 資料解釋의 계속적인 恣意的 改作에 不過한 成果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經濟史와 經濟理論과의 隔閡이 매꾸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⁷⁾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史料를 取扱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個人的인 觀點에서의 假說과 個人的 價值判斷이 介在되어 있는 經濟史家 自身の 準據裝置에 依存하게 되어 恣意的인 歷史解釋이 되어버릴 可能性이 더 增大될 수도 있다.

결국 多樣한 隣接學問 分野와의 關聯下에서 넓은 視野에서 經濟史를 研究하자는 舊來의 傳統的 方法과 純粹經濟理論의 視野에서 集約的으로 純粹經濟現象만을 다루고 高度의 統計學的 數量的 方法까지 援用하여 研究하자는 새로운 經濟史 研究方法은 어느 하나의 正統性만을 主張할 만큼 兩者擇一的인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傳統的 經濟史 研究方法을 主張하는 經濟史家들은 새로운 方法을 主張하는 經濟史家들이 主要 經濟問題에 集中的인 關心을 기울이고 集約的인 經濟理論의 分析和 精緻한 計量的 方法을 마음껏 活用하는데서 示唆받아야 할 점이 있고, 새로운 經濟史 研究方法을 主張하는 經濟史家들은 經濟現象의 複雜한 過程을 規定하는 社會的 政治的 思想的 宗教的 등등의 多樣한 要因을 直觀的(intuitive)으로 解釋的(interpretative)으로 理解하려고 하는 洞察力을 驅使하는 傳統的 經濟史家로부터 示唆받아야 할 점이 많은 것이다.

(17) Lange E. Davis, Jonathan R.H. Hughes and Stanley Reiter, "Aspects of Quantitative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 No. 4, p. 547.